

# 韓·印 문화교류의 구심점 '원효와 원측'

조은수 교수 '인도와 한국불교, 그 연속과...' 서 조명

원효 새로운 불교해석과 체계 이끈 선구자

원측 '반야심경찬' 인도 여러학과 이론 수용

인도와 한국은 긴 역사를 두고 문화적 연관성을 깊이 유지해 왔다. 특히 인도와 한국불교의 만남은 실제적인 교류를 넘어서 이념과 사상 그리고 유·무형적 만남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 교두보 역할과 구심점에는 원효와 원효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문화유산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회에서 서울대 조은수 교수는 논문 '인도와 한국불교, 그 연속과 불연속'을 통해 원효와 원효의 저술과 사상이 불설(佛說, buddha-vacana: 인도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보편적 진리)에 나타난 논의를 어떤 식으로 계승·변화·발전시키고 있고 또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조 교수는 인도와 한국불교 간의 이념·문화적 교류에 있어서 원효와 원측의 저술과 사상에 초점을 맞춰 인도와 한국불교 간의 연속과 불연속성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논문을 통해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은 중국의 선종이 성립하는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으며 인도불교의 인식론적 태도와 존재론적 전제에 대한 이해와 재

해석이 녹아져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원효를 인도의 수많은 불교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불교 해석과 이론체계를 제시하는 끊임없는 변화와 재해석에 참여한 고대 동아시아 불교형성의 선구자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원효의 저술들은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뿐만 아니라 중국 삼론종의 사상가인 송조나 길장의 저서를 인용한 것으로 유추했을 때 원효는 단순히 국내에 국한된 학승이러기보다는 당시 당나라를 비롯한 범아시아 불교문화권의 선각자로서 불교 이론의 스펙트럼을 모두 섭렵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효는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불교학적 또는 인문학적 지식의 지평을 넘어서 그 시대의 불교학적 지식 시스템과 전통을 해석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자임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또 원측의 저술 <반야심경찬> <해심밀경소> <인왕경소> 등에 나타난 불교사상을 통해 인도와 한국불교 간의 연속에 주목했다.

조 교수는 "유마경"에서는 부처님의 행위는 소리로 표현되고 있으며 <성유식론>에서는 법에 대한 가려지지 않는 지식 즉



서울대 철학연구소·문화유산연구소는 '한국과 인도의 문화·사상교류'를 주제로 10월 31일 서울대 박물관 대강당에서 국제학술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조은수 교수(사진 오른쪽)와 인도 델리대 바트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

명(名), 구(句), 문(文)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심이지>에서는 불설은 성(聲)과 명(名)에 의존한다'며 '원측의 <반야심경찬>이라는 주석서도 인도의 여러 불교학파들의 불설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측의 <해심밀경>과 <인왕경소>'는 중(宗:부처님이 가르친 내용)과 체(體:교체를 드러내는 수단과 표현)를 소개하고 그 개념들을 붓다바차나의 논의에 결합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원측의 저술은 '인도 아비달마 문헌에 나타나는 부다바차나의 이론에서부터 유식학파의 궁극적 가르침에 대한 이론에 이르기까지의 복잡한 전이 과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여래장과 화엄사상에 기반하는 체와 용, 이와 사들의 본체와 현상간의 이분화와 동일화를 넘나드는 이론'이라고 말했다.

논평에 나선 인도 델리대 바트 교수는 "조 교수의 논문은 7세기 무렵 한국의 고승들의 저서와 사상을 통해 인도와 한국불교 간의 사상·문화 교류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원효의 <금강삼매론>을 인도의 인식론과 결부시킨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인도의 문화·사상교류"를 주제로 10월 31일 서울대 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이번 국제학술회에서는 동국대 황순일 교수의 '붓다의 10가지 호칭의 기원과 전개' 서울대 이주형 교수의 '보드가야에서 쿠루세바라로:석굴암과 인도의 유례' 인도 델리대 라나 교수의 '선불교의 사상과 예술' 인도 뭄바이대 소마미야불교학센터 상카르나리아 연구원의 '인도와 한국 승려들의 문화교류' 등 8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7>

광우병

몇 년 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다시 수입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미국의 소는 광대환 초원에서 방목되지 않고 협소한 사육공간에서 키워진다. 소가 사는 환경과 위생관리 역시 미흡하다. 소를 빨리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제와 항생제를 투여한다. 먹이 또한 동물의 내장 등으로 만든 사료를 먹인다.

분해한다. 우리 몸의 세포는 이 아마노산을 다시 합성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의 모습이 몸의 세포 안에 있는 DNA에 적혀있는 정보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바뀐다.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프리온이 몸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 단백질을 분해하지도, 병원균으로 인식해서 공격하지도 못한다. 음식에 풍부히 포함된 다른 단백질과는 다르게 스스로 이상한 단백질을 변이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몸속에 들어온 프리온은 척추, 뇌 등의 신경조직에 쌓이면서 뇌세포의 이상 변이에 관여해서 광우병의 원인을

### 자본주의적 생산성 질병도 함께 '생산' 자연섭리 거스른 탐욕 의한 재앙 예고

광우병은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연의 재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미국의 과학자 가이 듀엑은 죽은 시체의 뇌를 먹는 식인족에서 유사한 병을 발견했다. 운송신경을 관찰하는 소뇌가 스펠린처럼 풀림으로써, 사지를 쓰지 못하다가 죽고가는 무서운 병이다. 유사한 병들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멧돼지 양떼에서도 발견됐는데 유사한 점은 모두 동물 사료를 먹은 동물에게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광우병을 옮기는 물질인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을 발견했다. 단백질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물질이다. 우리의 몸을 만드는 일, 호르몬을 분비하는 일, 심지어 외부 병원균에 대응하는 일에 단백질이 관여하고 있다. 어떤 형태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가는 세포의 핵안에 있는 DNA가 결정한다. 음식으로부터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아마노산이라는 작은 분자로

제공하는 것이다. 바이러스나 다른 병원균과는 다르게 스스로 복제해서 번식하는 기능이 없는 단백질이 따름이어서 더욱 발견과 퇴치를 어렵게 만든다. 웬만한 열이나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지 않은 물론 현재까지 발견된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도 통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상 단백질의 출현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라고 말한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는 인간의 현재의 모습을 '하이테크 식민주의'라고까지 비판한다. 값싸게 만들어진 고기를 먹고 비만을 걱정하고, 차를 타고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는 모습 등이 그것이다. 후자는 이러한 시스템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써 자비심을 배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고기를 먹지 않는 불교의 계율로부터 인간이 살아가는 오직 한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문병성

### 도선·사명 스님 진영 등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도선국사 진영(순천 선암사, 1805)' '사명당대장 진영(대구 동화사, 1796)' 등 12건의 초상화와 '광주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도선 국사 진영



사명 대사 진영

이번에 지정 예고된 초상화 12건은 예술·역사·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이들 초상은 복식과 의관, 기물이 다양하고 매우 화려할 뿐만 아니라 조선말기 초상

조형미가 뛰어난 뿐만 아니라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유물에서는 1388년 중수개금한 내용의 기물이 발견돼 그 이전에 불상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다. 노병철 기자

### 선문화학회 '청담 대선사...' 개최

한국선문화학회(회장 이병래)는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청담 대선사의 사상과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의 기조발표 '청담스님의 정화사상과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해 동국대 김선근 교수의 '청담스님의 한국불교사에서의 위치' 북경대 김방룡 교수의 '청담스님의 수행관에 대한 일고찰'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 이기영 박사 추모 학술대회 열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은 11월 3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불연 이기영 박사 추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동국대 김상현 교수의 '불연 이기

영과 한국불교사 연구' 동국대 문용식 교수의 '이기영의 경전 번역의 방법에 대한 시론' 등 총 8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세계적인 불교학자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캘리포니아 웨스트 컬리지)와 허버트 디르트 교수(일본 국제 불교학대학원)도 참석해 이기영 박사에 대한 추모의 글을 발표했다.

### 한국불교학회, 11월 추계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이병래)는 11월 11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제45회 추계전국불교학술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선교 수행, 응운불교학 등 총 4개 분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동국대 김호규 교수의 '선종이신신' 동국대 이남경 교수의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선 교역법' 원광대 윤양호 교수의 '현대불교와 선조형예술' 등을 포함해 14편의 논문이 소개될 예정이다.

<p><b>(불자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격: 5×5cm=50,000원</li> <li>계좌: 농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li> <li>전화: (02)2004-8213~6 (02)732-1522 (홈)</li> <li>전송: (02)737-0696</li> <li>e-mail: jabi1522@empal.com</li> </ul>	<p><b>암자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경북 칠곡군 구미 인근</li> <li>대지: 420평</li> <li>법당 13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5~6평</li> <li>가액: 1억 3천만원</li> </ul> <p>011-511-0926</p>	<p><b>사찰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충북 괴산(중평)</li> <li>법당 30평, 요사 35평, 20평 가건물 15평, 텃밭 300평 대지 약 400평</li> <li>특징: 심야보일러, 지방문화재 천연석조 약사여래불, 깔끔한 사찰</li> <li>가액: 2억 4천 5백만원</li> </ul> <p>043)836-9149</p>	<p><b>포교당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부천여중 뒷편</li> <li>건물: 4층에 3층</li> <li>평수: 30평</li> <li>시설완벽, 8년 되었음</li> <li>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6만원</li> <li>시설비 답사 후 결정</li> </ul> <p>017-375-1919</p>
<p><b>사찰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경북 의성</li> <li>평수: 대지 150평, 요사 2동</li> <li>건물: 54평</li> <li>삼존불, 16나한 봉안</li> <li>가액: 보증금 500만원 선세 180만원(합 980만원)</li> <li>시설비: 300만원</li> </ul> <p>010-6374-0034</p>	<p><b>절터(급)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li> <li>대지: 660평</li> <li>구가옥 창고 30평</li> <li>가액: 평당 40만원 (절충가능)</li> </ul> <p>011-299-4465 (031)674-7188</p>	<p><b>사찰안내</b></p> <p>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에서 1시간 30분</li> <li>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li> <li>모든것 완전구비</li> <li>30억 이상 투자</li> <li>가액: 17억</li> <li>사찰역사 320년</li> <li>※중개인 전화 사절</li> </ul> <p>017-373-5998</p>	<p><b>절터나토굴터필요하신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경주 보문단지 윗쪽</li> <li>평수: 등기상 약 450평</li> <li>전체 면적 (하천부지포함) 약 1000평 사용하고 있음</li> <li>산세가 아름답고 물과 공기가 좋은곳, 사찰 혹은 토굴터나 펜션하실분</li> </ul> <p>017-803-0202</p>
<p><b>사찰(급)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충북 진천군교 서울에서 1시간거리</li> <li>부지: 총 550평중 대지 300평 (실사용평수 650평)</li> <li>건물: 요사채 40평 (요사채임부 임박당) 법당지 건축허가됨</li> <li>특징: 산세수려, 교통편리</li> <li>가액: 1억 8천 5백만원</li> </ul> <p>010-2333-3638</p>	<p><b>사찰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청주 시내, 공인 면적 20대 가</li> <li>대지: 65평, 건물 2동</li> <li>법당: 25평 (현신 건물) 방 1개, 욕실, 화장실, 마당</li> <li>요사채: 30평 리모델링완벽, 큰 사무실 1, 방 2 큰 창고방 1, 창고, 욕실, 화장실, 심야보일러</li> <li>가액: 모든시설 집기포함 2억 8천(절충가능)</li> <li>5년 후 재개발지역으로 확정</li> </ul> <p>043)267-7580 (010)8421-2255</p>	<p><b>토굴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li> <li>가옥 신축 황토</li> <li>기와집 33평, 부지 672평</li> <li>가액: 2억 2천만원</li> <li>특징: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디밭</li> </ul> <p>016-367-2112</p>	

## 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 (2박3일) 안내

-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교과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접강의)
- 강좌 일**
  - 2006년 11월 30일 ~ 12월 2일
-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사혈기 및 필수 부항·펌프 보시
-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